2008년 아시조 郎中公 춘계향사

수임에 대전문중의 權善慶 정헌공종회장

▲ 낭중공의 봉암재사에서 수임 임석하에 향사의 집사자가 분정되고 있다.

▲ 초헌관이 단소의 낭중공위전에 삼상향으로 분향을 행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단소壇所에서 음력 3월 하정下丁의 정일인 4월 27일 일요일 오전에 무자년의 춘계향사春季享祀가 봉행되었다. 향사는 근년의 예년과 같이 당일 입재入齋 당일 행사로 치렀다.

참제원은 70여인이었는데 안동에서 전세버스편으로 30여인이 오고 그밖에는 부산과 대구지역 후손이 대부분이었다.

행사의 수임首任은 작년 추향시 차기 도유사都有司로 천망된 추밀공파의 대전 참의공문중 후손으로서 정헌공종회장 正獻公宗會長(추밀공파 14世 계림부원대군 王煦)을 맡고 있는 권선경權善慶씨가 초헌관으로서 행공하였다. 그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선경權善慶
아헌관 : 권중환權重煥
종헌관 : 권오범權五範
진설陳設 : 권상수權相壽、권오전權五銓、권중원權重元、권희철權熙哲、권대승權大昇、권순택權純澤
축祝 : 권이현權二賢
찬자贊者 : 권경웅權敬雄
봉향奉香 : 권기현權奇現、권영식權寧植、권기석權奇碩
봉로奉爐 : 권오서權五瑞、권혁동權赫東、권형락權炯洛
봉작奉爵 : 권세칠權世七、권원학權源學、권경일權景一、권문학權文學、권길상權吉相、권상흠權相欽
사준司尊 : 권영복權寧福、권덕림權德林、권순제權純濟、권영현權英鉉、권순룡權淳龍、권부현權富鉉

<權五權 제공>

亭巖 權翊鉉 전민정당대표

불탄일 '佛子대상'받아

▲ 조계종의 지관 총무원장이 권익현씨에게 불자대상을 증정하고 있다.

음력 4월 초파일인 5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曹溪寺에서 있은 불탄일佛誕日 봉축법요식에서 정암亭巖 권익현權翊鉉 전민정당 대표가 불교에서 신자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인 '불자대상佛者大賞'을 받았다. 권익현 전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있으며 이날 법요식에서는 각정당 대표등 많은 정계요인이 참석하고 있었다. 조계종의 지관총무원장이 위원장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불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4월 30일 불기 2552년의 불자대상 수상자로 3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권고문 외에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태영 대장과 TV탤런트 고두심씨였다. 이 상은 '불교계의 노벨상'이라는 칭이 있기도 한데 그 대상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공로가 크고,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크며,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공로가 크고, 종단 발전과 홍보에 공로가 크며,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상이 시상된 것은 올해로 다섯번째가 되고 있는데 안동권씨인으로서는 2006년에 2군사령관 권영기權永基 대장이 이를 수상한 바 있다.

권익현 고문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正覺會를 창립하는데 기여하고 그 회장을 여러차례 연임하면서 국회내에 정각선원正覺禪院을 열고 경찰에 경승警僧 법사제도法師制度를 실현케 하였으며 불교방송국 개원에도 기여하였는데 소시부터 독실한 불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익현씨는 복야공파 감정공계 35세손으로 1934년에 경남 산청에서 출생하여 대구에서 성장하며 능인고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하고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였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 등을 수료했다. 경남 산청을 지역구로 국회 제11·12·14·15대의원으로서 민정당 경남도당위원장·사무총장·대표 등을 지냈으며 2006년 12월 4일에는 시조 태사공의 능동 추향陵洞秋享에 수임首任으로 행공하였다.

<글 權奇允 · 사진 조계사 · 연합뉴스 제공>

▲ 조계사에서 불탄일의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인데도 양창식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 대표, 이도형 한국논단 이사장, 이동희 오성연구소 이사장, 송선용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윤덕규 전 중앙고속 사장 등 원로와, 김명열 연일화섬 회장 등 기업인,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 국방대·정보학교·육사·광운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안동권씨 문중에서도 이날 사회를 맡은 권태영 박사를 비롯하여 권영기 전 2군사령관, 권승찬 전 8군단장, 권해호 부경대 교수, 권기훈 민족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일군사문화학회는 2001년에 설립하여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회원 수는 200여명이다.

<사진 權奇允 · 글 權炳逸>

한일군사문화학회 08년춘계 학술세미나

5월 16일 서울용산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 권해조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본사 편집위원 권해조權海兆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일군사문화학회의 2008년도 전반기 춘계 세미나가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의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대의제大議題는 '건군建軍 60년의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이고 그 사회는 또한 권문인으로서 육사 18기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권해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건군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명박실용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어느때보다 한일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의 최고 군사전문가들과 모여 세미나를 갖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하면서 세미나 장소도 건군 후 군의 주요 회의와 임관 파티 등을 여는 연회장으로서 역사와 전통의 유서가 깊은 육군회관에서 열게 되어 의의가 깊다면서 참석자들이 고귀한 경륜과 지혜를 모아 폭넓은 토론의 장이 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축사를 하는 신현수 학회 고문과 송봉헌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학회의 활동을 치하하며 '한일관계의 발전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좋은 자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일군사문화학회의 춘계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제1주제로는 국방대학교 박영준 교수의 '노무현정부의 국방정책과 동북아 안보질서'가 발표되고 KIDA의 백승주 교수가 그 평가·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는 일본 방위연구소防衛研究所 다케시다武貞秀士 박사의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방위'가 발표되고 인하대의 남창희 교수가 그에 대한 평가토론을 하였다. 제3주제는 '한일관계와 한국의 대일정책'인데 이를 논문저자 광운대의 전진호 교수가 발표하고 충북대의 박홍영 교수가 평가토론하고, 제4주제는 '한미일 관계와 대미외교의 자세'인데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가 발표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박사가 평가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종합토론이 사회 권태영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